

함께 나누는 사랑

가을호
2014. 10
NO.24
동물보호지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Special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현장에서

교육이란 허울을 쓴
동물학대 산업, 동물체험장

세상 읽기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생명운동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트렌드를 창조하는 베이직하우스

누퐁바의 그루밍

동물을 가족으로 삼는 좋은 방법

CONTENTS

03 여는 글

실험동물의 운명, '현대판 시시포스'일까요?

04 Special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16 현장에서

교육이란 허울을 쓴 동물학대 산업, 동물체험장

18 세상 읽기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생명운동가!

20 견생역전

엄마 별이 아가들에게 내려 준 평생 가족

22 생명존중 캠페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트렌드를 창조하는 베이직하우스

25 입양해주세요

비글은 악마견이라는 편견, 이제는 버리세요!

26 생명 에세이

파수꾼

28 활동소식

2014년 8월 ~ 2014년 9월

30 남양주 포토뉴스

꼬물꼬물 아기 강아지들이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31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32 누뽕바의 그루밍

* 표지 사진 주인공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춘자입니다.
춘자를 가족으로 삼고 싶으신 분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입양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2014. 가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4년 10월 30일 편집·진행 이기순 교정 박지숙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순환광고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함께
나누는
삶
302

실험동물의 운명, '현대판 시시포스'일까요?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얼마 전 모 정부기관에서 진행 중인 이종장기 이식 연구 성과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형질전환 돼지 복제에 성공해서, 복제 돼지의 장기를 영장류에 이식해 신장의 경우 23일 생존 결과를 나타냈다는군요. 연구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을지 상상은 안 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선 정확하게 두 마리, 돼지와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듣기만 해야 하니, 늘 그렇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물 실험과 인류 의학 사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니까요.

'동물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의 원론적인 주장을 사회적 이해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은 아주 많이 약하고, 또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문제를 단지 '나' 아닌 '타자'의 문제라고만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제품과 아플 때 큰 고민 없이 먹는 약품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동물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동물 이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동물실험 그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용자가 방조자 또는 가해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물실험을 한 제품을 쓰고 싶지 않으니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체소재 개발요구이며, 동물실험 반대 운동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동물을 대체할 소재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입니다.

다시 이종장기 이야기로 돌아가, 제 아버님은 생선 폐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수혈을 받으신 직후 온몸을 사시나무떨듯 하며 피로워하시기에 의료진에게 이유를 물으니, 면역 거부 반응 때문이라 하며 진정시키기 위해 억제제를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 뒤 최적 상태의 동종 혈액을 투입하고도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물며 이종장기 이식 연구의 경우라면,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인간과 동물의 신체 세계를 어찌 정복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종장기 이식 연구의 일부가 성공한 후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마치 80~90%는 다 이루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관련 질병 환자들이 새 세상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성과란 과학 발전의 아주 작은 한 단계일 뿐, 복잡 정교한 생체 메커니즘 정복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종장기 연구의 실상은 멀고 먼 험난한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에 응당한 유형, 무형의 책임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암'이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듯, 과학이 인류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낸 대가의 실례들은 참 많습니다. 이종장기의 연구가 지금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인류에 대한 기여로 여겨지지만, 결국 인류에게 또 다른 고통, 지금 이룬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숙제를 등에 업고 나타나는 신기루인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문제는 과학 연구 진행 중에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며 제대로 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희생될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의 고통을 동반한 연구의 결과, 그 이득이라는 동전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동물들. 그들의 운명은 '현대판 시시포스의 운명'인가요?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 굴러 내려가 다시 정상까지 운반해야 하는 신화 속 시시포스의 운명 말입니다.

이 하염없는 연구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결과적으로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 이것은 단지 동물애호가 혹은 염세주의자로 치부되는 사람들의 읍소일 뿐일까요?





동물 입양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집니다. 버려진 동물 중 절반 이상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죽거나 안락사 당합니다.

동물자유연대에는 다시 한 번 가족과 함께 살 날만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대신 보호소에서 입양해주세요.

반려동물 입양, ‘자선’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글 이형주 팀장



불법으로 사냥개를 번식시키던 곳에서 구조된 뒤, 뉴욕의 입양 행사장에서 내게 입양된 밴조. 밴조는 건강하고 멋진 비글 혼혈견이다.

구조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된 날

2009년, 나는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했다.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둘이 되어 돌아왔다. 나와 함께 돌아온 강아지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다는 귀가 커다란 검정 강아지가 필사적으로 케이지를 흔들며 탈출을 시도하고 있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 강아지를 본 곳은 뉴욕 시 근교에 있는, 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주말마다 도심에 있는 동물용품 백화점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 입양자를 찾는 행사 장소였다. 당시 자원봉사하시던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 강아지는 미국 남부 테네시 주에서 사냥에 쓰기 위한 개들을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면서, 단속에 걸리면 방치하고 도주하는 일당으로부터 구조된 개라고, 그래서 뉴욕 주의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로 이송된 것이라고 했다.

입양 절차는 명확했고 복잡하지 않았다. 나는 신분증 복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말인 관계로 재직증명서를 내는 대신 근무하던 학교 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받았다. 또한 내가 믿을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2명의 추천인이 증언을 해야 했는데, 이것도 주말 행사인 만큼 서류 대신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밖에 두지 않고 집 안에 두겠다는 조항이나, 사정이 생겨 양육을 포기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보호단체로 연락하겠다는 조항 등이 명시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었다. 그렇게 강아지는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됐다.

중성화 수술을 받느라 목욕을 못해서 쿼퀴한 냄새가 나는 강아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안고 집에 돌아오는 길, 고작 40일을 산, 몸길이가 두 뺨도 안 되는 강아지가 넓은 미국 땅을 반 바퀴 돌아 내게 왔단 생각에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성격이 극도로 낙천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 강아지에게 나는 미국 남부에서 연주하는 전통악기 이름을 따 ‘밴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동물 등록’으로 엄연한 사회 일원이 되다

밴조와 집에 오자마자 처음 한 일은 인터넷에 접속해 시(市)에 동물 등록을 하는 일이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를 기르려면 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역마다 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뉴욕 시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시에 접수하고 8달러 50센트를 낸다. 그러면 개 소유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달린 동그란 인식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면, 중성화 수술을 안 한 동물은 34달러로 4배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매년 같은 비용을 주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에서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중성화 수술 장려를 통해 반려견의 수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광견병을 예방해 공중 보건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임을 홈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내장형 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의도적인 유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상 외장형 인식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일부 주와 북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이 의무화되어 있고, 영국에서도 이를 2016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반려동물등록제가 ‘유실 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인다’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혈견이 더 좋아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밴조의 사회생활은 공원에서 시작됐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밀집 지역인 뉴욕 시에서는, 좁은 집에 사는 개들이 충분히 운동하고 다른 개들과 접촉하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대다수의 개 주인들이 매일 개를 데리고 공원에 나온다.

개와 산책하다 만난 사람들끼리 가장 자주 주고받는 질문 중 하나는 아마 ‘이 개는 무슨 종이 섞였나요?’일 것이다. 유기동물 입양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된 대도시의 경우에는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대부분은 혼혈종,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믹스견’이다. 그래서 ‘무슨 종인가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글과 섞인 것 같기는 한데,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정확히는 몰라요’라고 대답하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개 종 맞추기 스무고개’가 시작된다. ‘색깔을 보면 도베르만과 섞인 것 같네요’, ‘내가 아는 개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개는 비글과 닥스훈트 믹스였어요’ 하며 난무하던 추측들은 결국 백이면 백, ‘어쨌거나, 역시 개는 멋지고 건강한 혼혈종이 최고!’라는 결론으로 싱겁게 이어지고 웃음과 함께 끝난다.

물론 외국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인 취향 때문일 수도 있겠고, 간혹 순종견을 길러야만 특정 종에게서 유전자적으로 대물림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병이나 결함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혼혈종에 대한 편견이 많지 않다. 오히려 순종견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즉 같은 종을 오랜 세월 번식시켜온 데서 비롯된 유전적 문제들이 혼혈견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또한 그런 혼혈견은 열성인자(Defective Genes)들이 제거되어 더 건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내 개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생김새와 성격을 가졌다’는 점도 혼혈견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직도 매년 등록비를 내고 등록을 갱신하면 우편으로 날아오는 라이선스. 파란 스티커는 등록이 내년 8월까지 유효함을 나타낸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밴조와 자주 산책을 했다.

대부분 보호소에서 입양, 펫샵 구매율은 6%에 불과해

뉴욕 거리에서 개와 함께 걸어 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 ‘친척 아닌 친척’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보호소에서는 보호 중인 동물에게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목줄을 착용시키는데, 입양된 뒤에도 그 목줄을 그대로 하고 다니는 경우엔 같은 목줄을 한 개를 마주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생면부지의 남이지만, 이런 때는 마치 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친척이라도 만난 양 반가운 마음이 든다. 상대 개 주인과 나누는, 서로의 개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한바탕 이어지고 ‘앞으로 건강하게 기르라’는 덕담을 서로 나누 뒤 헤어지면, 웬지 동지를 만난 것 같이 뿌듯하고 든든하다.

미국 내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SUS)’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0%에 달한다. ‘반려동물 개체 수 연구와 정책 의회(National Council on Pet Population Study and Policy)’의 2012~2013년 조사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6백만에서 8백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유입됐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양됐다. 반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의 경우 입양률이 연 27~8%에 그친다. 미국 내 조사 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구매한 경우는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 보호소에서 입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펫샵이 아닌 전문 브리더(Breeder)에게 구입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상업적 용도로 번식하려면 농무부(USDA)에서 허가증을 받도록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브리더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따로 시설 없이 집에서 번식시키는 브리더라고 해도 번식을 위해 암컷을 다섯 마리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요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브리더는 검사를 통해 적절한 시설, 청결한 위생 상태, 물과 사료의 공급, 덥거나 추운 날씨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고용 수의사나 축탁 수의사에 의한 정기적 검진 또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번식시키는 시설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26개의 주에서는 주법(State Law)을 만들어 브리더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브리더는 케이지의 크기를 명시하고 철사(Wire)로 만든 케이지를 금지해야 한다. 또 어미개가 일생 동안 임신하는 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거나, 야외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브리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각 주나 시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보편화된 위탁가정(Foster Home) 제도

외국에서 자리 잡은 입양 문화 중 하나가 바로 ‘포스터 홈(Foster Home)’, 우리말로 ‘위탁가정’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시 보호’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위탁가정’ 제도를 통해 너무 어리거나 부상이나 질병 탓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 보호소에서 보호되기에 극히 부적절한 동물들, 보호소가 없는 단체 또는 안락사를 시키는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빼내온 동물들은 입양처가 나타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으면서 위탁가정으로서의 역할에만 자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꼭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 자체적으로 동물 구조와 임시 보호, 입양 주선 활동까지 소화해내는 경우도 많기에 외국의 위탁가정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체계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은 넘쳐나는데 한정된 보호소 공간 때문에 항상 적시에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탁가정의 필요가 절실하다. 버려진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동물들에게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따뜻한 품을 내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유기동물 시민보호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자



동물자유연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물 입양 홍보 행사를 열고 있다.

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보내는 대신 기존의 유기동물 등록 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구조한 시민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질병에 감염되거나 환경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줄이고, 보호소에 머무는 개체 수를 줄여 관리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동물을 구조한 뒤 그 보호와 관리, 입양까지의 책임을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동물보호단체,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분양’보다 ‘입양’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사회를 위해

흔히 개나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아마도 한꺼번에 태어난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한 마리씩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로 쓰기 시작한 말인 듯한데, 요즘에는 동물을 펫샵에서 사진, 인터넷에서 사진, 그냥 ‘구매했다’는 말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샀다’라는 표현보다 ‘분양받았다’는 표현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살아 있는 생명을 물건처럼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죄책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자유연대에서 보물 같은 가족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희망이 보인다. 지난 7월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양 홍보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당장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참가해서 보호소 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하자는, 또 반려동물을 식구로 맞을 때에는 당연히 ‘보호소 입양’부터 고려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는 행사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을 두고 마치 ‘대단한 사명을 가진 성자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희생적인 자선 행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매년 발생하는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펫샵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이는 곧, 수요에 맞춰서 개, 고양이를 기계처럼 뽑아내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려견과의 산책길에서 ‘개 참 예쁘네요. 어느 보호소에서 입양하셨어요?’라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단지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길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든든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입양은 구조의 또 다른 이름

글 정진아 활동가

지난 8월, 개 한 마리가 견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당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견주가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개를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렸으며, 제보 이틀 전에는 개를 2층 높이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학대견의 안전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피학대견을 구조해 반려동물복지센터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였던 센터에는 구조된 피학대견이 입소할 공간이 없었고, 구조견은 한동안 센터 내 임시 거처에 머물다 하나의 견사를 둘로 나누어 공간을 마련한 뒤에야 견사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건립된 지 1년, 벌써 센터에서는 구조가 가장 시급한 피학대 동물의 입소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입양입니다.



센터에 들어온 동물들은 미래의 가족에게 입양될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그 후 1년

2013년 8월, 시민들의 후원으로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좁은 방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한 탓에 동물들이 싸우거나 아프지는 않을까 매일 살얼음판 건듯 운영했던 기존의 보호소를 기억하는 회원들은, 깨끗한 시설에 운동장까지 마련된 센터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보호하던 동물과 외부 보호소에 위탁했던 동물들이 돌아오자 이미 센터의 대부분이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센터를 세운 후 더욱 급증한 구조 요청으로 인해 현재 센터에는 수용 한계인 200여 마리가 모두 입소한 상황입니다.

센터는 학대와 유기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동물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평생 함께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한번 입소된 동물은 불필요한 안락사 없이 입양되거나 자연스레 생을 다할 때

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침은 무엇보다 동물 복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나, 동시에 단체가 모든 구조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안락사 없이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누군가가 입양되어 공간이 생겨야만 새로운 동물을 구조하는 게 가능한데, 구조가 필요한 동물에 비해 입양되는 동물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동물을 입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자 동물자유연대는 개인이 구조해 임시 보호 중인 동물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한 입양 공고, 치료비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요청의 대부분은 단 몇 개월의 임시 보호도 어렵다는 이유로 센터 입소만을 요청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와 구조 요청이 들어오지만, 구조 동물의 임시 보호처와 유기동물 입양 가정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체의 구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구조를 위해서는 입양 활성화가 시급

안타까운 동물을 돕고 싶은 마음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밀려드는 유기동물 민원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락사가 없는 일부 사설보호소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쌍한 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 보호소나 사설 보호소에만 맡기는 것을 진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운 좋게 자리가 생겨 센터에 입소된다 해도 입소는 구조의 끝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동물을 돌봐야 하는 보호소의 특성상, 센터에 사는 동물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람과 충분한 감정적 교류를 하지 못한 채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맞거나 길에서 굶주리며 살아가던 과거에 비하면 편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호소에 사는 어떤 동물도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만큼 정서적 충족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구조의 행복한 결말은 센터 입소에서 그치는 게 아닌 입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보호소를 모델로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건립됐지만, 그 건립 목적은 구조 동물이 평생 살아갈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는 구조 동물의 입양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입양 때까지 동물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 중인 동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에 처한 또 다른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활발한 입양은 동물 구조와 센터 운영의 핵심입니다. 센터에서 한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되는 것은 길에 쓰러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입양을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결정으로 하나의 생명에겐 평생 자기만 바라보며 사랑해줄 가족이, 또 하나의 생명에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01



02

01 약 7년 동안 동물자유연대 보호소에서 살아온 형아와 막댕이는 올해 초 가족을 만났다. 형아와 막댕이가 살던 방에는 새로운 유기견이 구조되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02 역시 동물자유연대 보호소에서 오래 생활하다 입양된 렉키

가족의 탄생

인터뷰 · 정리 이기순 활동가

2013년 10월,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최초의 선진형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한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동물복지형 보호소에 그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양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동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센터 이전 후, ‘동물자유연대 동물들은 좋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으니 이왕이면 열악한 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늘어났다. 입양은 정제됐고, 구조와 입소 요청은 쇠도했지만 센터엔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다. 2014년 하반기부터 매달 열고 있는 ‘당신의 운명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입양 캠페인’은 동물자유연대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해서 구조와 입양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행사다. 7월 첫 행사에서 딸기와 보리, 준·주노 남매가 입양돼 고무적인 첫 출발을 했다. 그중 발랄소녀 딸기와 소심공주 보리의 새 가족을 만나고 왔다.

집에 들어서자 딸기와 보리가 열심히 짖어댔다. 활발한 딸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심한 보리는 꼬리를 내리고 슬금 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래 여기 너네 집 맞다. 엄청 텃세하네” 하고 준비해 간 껌을 작은언나에게 허락 받고 하나씩 나눠준 뒤에야 딸기와 보리는 조용해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자랑을 시작했다. “처음 왔을 땐 둘 다 적소리도 안 냈어요. 한 달쯤 지나니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겁보인 보리가 방문객에게 처음 짖었을 땐 어찌나 기특하던지...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 제지하면 안쓰러울 정도로 껌을 먹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한두 달 지난 후엔 자제시켜야죠.”

딸기와 보리는 동물자유연대가 입양문화 개선과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입양 캠페인 첫 화에서 동반 입양이 성사된, 소중한고 신나는 사례다. 반려견을 맞이하려고 온 가족이 함께 캠페인에 참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임시 보호 중인 아이의 새 가족을 찾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회원은, 처음 만난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는 딸기가 낯설고 신기해 ‘가족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딸기를 입양하고 싶어했던 또 다른 참가자는, ‘저 가족에게 입양되는 게 딸기가 더 행복할 것 같더라’ 아쉽게 포기했을 정도로 딸기는 처음부터 ‘아빠 강아지’였다. 딸기 아빠도 같은 마음이셨을까?

“딸기를 보니 어릴 때 키우던 개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개가 다 요랬거든. 우리 때는 딸기, 보리 같은 발바라가 진짜 개였어요.” 무릎 위 딸기를 쓰다듬는 아빠 손길이 따뜻하다. 큰언니가 “딸기를 옆두에 두고 캠페인에 참여했던 건 아니었어요. 딸기가 우릴 짖었죠. 만나자마자 아빠한테 포옥 안기고, 옆에서 발 맞춰 걸으며 계속 눈을 맞췄어요. 이빨 완전히 녹었다니까

요” 하더니 “근데 집에 와선 바퀴였어요. 이젠 비싸게 굴어요” 하며 웃는다.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던 딸기와 보리 부모님이 가족을 꾸린 뒤 처음 키운 개는 막내 오빠가 데려온 뽀빠였다. 친구네가 더 이상 못 키우겠다길래 불쌍해서 데려왔단다. 뽀빠를 식구로 맞은 뒤 혼자는 외로울 듯해 동물병원에서 주리를 샀고, 뽀빠와 주리가 낳은 달곰이까지 그들은 셋과 십여 년을 함께 살았다. 2010년 주리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뒤에는 마음이 아파 개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4년 만에 다시 입양을 결심한 데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걸까?

“우리 아이들이 다 개를 좋아해서 또 키우자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보낼 때의 아픔을 아니까 엄두가 안 나 몇 년을 망설였죠. 그러다 첫째가 ‘그럼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입양하면 어떠냐’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개를 키우려면 사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첫째 얘기를 듣고 보니 가족이 필요한 보호소 동물을 입양하는 거라면 좋겠다 싶어서 용기가 났어요. 마침 동물자유연대 보호소 동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캠페인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다 딸기를 만난 거죠.” 엄마 말씀을 들으니, 역시 가족이 될 인연이었다.

딸기, 보리 가족도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진 다른 이들과처럼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유기동물보호소엔 난폭해서 버림받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탓에 가족이 되기 힘든 동물들만 있을 거란 선입견을 가졌단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나는 하기 힘든, 특별히 훌륭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애들을 보호소에서 데려왔던 걸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산책길에 나선 딸기, 보리의 행복한 모습



남자를 무서워했던 보리가 오빠와 눈 맞춤을 하기까진 가족들의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했다.

걸 알았죠. 그러니 동물자유연대가 우리 딸기, 보리처럼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이 보호소에 많고, 가족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더 열심히 알려줬음 해요.” 엄마가 당부를 전한다. 큰언니가 “품종견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 입양 홍보를 위해서 입양된 발바리들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을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왔잖아요” 했던니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릴 때 센터에 들어와 비교적 빨리 입양된, 운 좋은 경우긴 하지만 딸기와 보리 또한 사연 있는 아이들이다. 딸기는 반려인이 자살한 뒤 노견 두 마리와 함께 고아가 됐다. 개를 키울 생각이 없던 반려인의 가족은 나이든 두 마리는 안락사시켰고, 어린 딸기는 차마 죽일 수 없어 동물자유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갑자기 식구들이 모두 사라졌던 경험 탓일까? 딸기는 시샘이 많다. 아빠를 차지하고 앉아서도 보리에게 으르렁대는 일이 많았다. 보리는 버려져 들개가 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세 마리 중 하나다. 바깥 생활하며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한 탓에 겁이 많고, 특히 남자 어른을 무서워한다. 집에 온 다음날 가족 중 처음 귀가한 아빠를 보고 놀라 화장실에 숨어, 나오는데 4시간 걸렸단다. 그래서 온 가족이 화장실 사용도 참고 보

리를 격려하며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했다. 그 보리가 이제 가족들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루만지다 멈추면 계속 만져달라고 앞발로 손을 톡톡 쳤다. 그런 보리를 보며 인터뷰 내내 가족들은 ‘참 많이 나아졌다’를 연발했다. 가족들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개와 입양 상담을 통해 딸기와 보리의 과거 경험을 알고 있었고, 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 마음 약한 엄마에게만 딸기 사연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궁급해 하시는 엄마에게 딸기의 옛 가족 얘기를 꺼내자, 큰언니가 딸기 들으면 안 된다며 딸기 귀를 막고 콧노래를 흥얼거려 준다. 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왔다.

“보통 사람들은 동물을 그저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 여기죠. 오라면 오고,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길 원하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어리고 작은 강아질 선호하는 거예요. 맘대로 하기 쉬우니까.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맞추기 위한 노력,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지요. 우리 딸기와 보리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보리는 남자 어른을 무서워해서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는 데 한 달 걸렸어요. 지금처럼 가족이 거실에 모여앉아 있을 때 옆에 편안히 누워 있게 되기까지 두 달



딸기, 보리를 눕듯이처럼 여기고 예뻐하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편안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걸렸고요. 엄마는 아직 보리를 한 번도 못 안아보고 짹사랑만 하고 있어요. 하하하.” 아빠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 오빠랑 큰언니도 앞다퉈 말한다. “반려동물을 갖는 건 가족을 들이는 거지 예쁜 물건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고, 가족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야 해요.” “아직도 애완견이라면서 기호품 대하듯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브랜드 상품 사듯 품종견 선호하고 그러잖아요. 옳지 않아요. 저희도 사는 법밖에 몰랐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마음에 닿는 아이를 만나고 나니 좋은 아무 의미 없었어요.” 딸기와 보리가 온 뒤로 가족은 대화도 더 늘었고, 매일 산책하는 덕에 운동도 하게 되어 좋아진 점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딸기와 보리의 진가는 언니, 오빠가 결혼한 뒤에 드러날 거란 게 아빠 생각이다. “나이 들어 강아지를 입양하니, 아이들 짹 채워 떠나보내고 나면 내겐 딸기와 보리만 남겠구나 싶어요. 녀석들은 우리 부부에게 노후 대비용 늑둥이인 셈이죠. 우리 딸기, 보리랑 말년을 아주 재밌고 건강하게 보낼 거예요. 하하.”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저녁 산책 시간이 됐다. 가족의 산책 모습도 볼 겸, 사진도 찍을 겸 나설 준비를 하자 보리가 겁을

먹고 딸기 시작했다. 어쩌나 심하게 떠는지 몸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다. 내가 자기를 다시 데려가는 줄 알았나보다. 나는 물론이고 온 식구가 매달려 데려가는 거 아니라고, 이제 보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지만 보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보리를 안고서 집 앞 안양천으로 나섰다. 다 같이 산책을 시작하자 보리도 조금 맘이 놓이는지, 식구들과 험껏 뛰고 풀 냄새도 맡으며 행복하게 산책했지만 뒷다리 사이에 들어간 꼬리는 여전히 올라오지 않았다. 엉덩이까지 흔들며 활개치고 다니는 딸기와 달리 보리는 아직 한 번도 꼬리를 뺏뺏이 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우리 보리, 처음 왔을 땐 아예 밖에선 움직이지 않았어요. 골목도 무서워하고, 차도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양옆에서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면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보리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면 곳곳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때 다시 놀러 오셔서 산책 한번 더 해요.” 큰언니가 건네는 초대에 꼭 그러마고 약속하고 일곱 식구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은, 정말 행복했다. 딸기와 보리가 찾은 행복이 반려동물복지센터 아이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이란 허울을 쓴 동물학대 산업, 동물체험장

글 김영환 활동가



열악한 유리장 안에 갇혀 무료함에 고통 받는 동물체험장의 원숭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 내에 동물체험장이 늘고 있다. 주로 이들 체험장은 햄스터, 토끼, 앵무새 등 작은 동물을 관람하고 직접 만져보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업체에 따라선 미니 돼지, 라쿤 같은 동물이나 심지어 원숭이, 설가타거북, 반달가슴곰 같은 멸종위기의 동물까지 전시한다. 유치원이나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이동식 동물전시업자를 불러 아이들에게 화귀동물을 만지게 하는 수업도 유행 중이며, 제주도 등 유명 관광지에선 돼지나 말, 타조 등을 이용한 대규모 동물체험장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동물체험 업체들은 아이들이 동물을 만짐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동물의 생태를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단순히 ‘낮선 동물을 목격했다’는 호기심 충족 이외엔 별다른 교육 효과가 없다. 오히려 동물을 사육장에서 꺼내 마음대로 만져보게 부추기는 행동은 아이들로 하여금 동물을 생명체 아닌 오락거리로만 여기게 만든다. 입

장료를 내고서 사육장에 갇힌 동물을 관찰하고 만진 경험은, 생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기회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가두고 상업적 용도로 쓰는 일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쥐어준다. 체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종종 사망에까지 이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이들은 동물 쇼보다는 직접 만지기만 하는 체험이 더 인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체험동물원은 동물 각자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체험활동의 편의’를 우선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육장에는 동물들이 숨거나 휴식할 은신처가 없고, 언제든 관람객이 열어볼 수 있는 작은 유리장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의 사육장에서는 동물들이 걷고, 뛰고, 높은 곳을 오르는 등의 정상적인 행동 표현이 극도로 제약되며, 동물들은 완전히 노출된 채 온종일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에 의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동물자유연대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양한 곳의 동물체험장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상태의 동물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은신처조차 없는 좁은 환경의 동물체험장

동물체험장의 문제는 동물의 본능과 습성을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장 구석이나 옥상 휴게실 등 유휴공간을 개조해 만든 쇼펍 시설의 동물체험장은 ‘미니 동물원’, ‘작은 동물원’ 등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이름처럼 작고 협소한 전시공간은 동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상동증과 같은 이상행동을 발생시킨다.

사육장이 좁다보니 내부 환경 역시 단조롭기 짝이 없다. 콘크리트 바닥과 장식을 위한 조형물이 전부인 공간에서 동물들은 지속적인 무료함에 시달린다. 부천의 한 아웃렛 매장 동물체험장에선 먹이를 물에 씻어 먹는 습성을 가진 라쿤이 물 없는 우리 안에서 바닥의 나뭇조각을 손에 쥐고 물에 씻는 흉내를 반복하고 있었다. 무리 생활을 하며 다른 개체와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원숭이가 장난감 하나 없이 텅 빈 사육장에 홀로 있거나, 코로 땅을 파는 습성을 가진 돼지가 콘크리트 바닥을 코로 헤집고 있는 장면도 동물체험장에선 흔한 풍경이다. 동물체험장의 좁고 단조로운 공간만큼 동물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은신처의 부재다. 가장 흔하게 전시되는 토끼, 햄스터 같은 소동물은 대부분 겁이 많고 민감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피하거나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험장은 관람객들이 언제든지 쉽게 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예 은신처를 설치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사람들의 손길에 겁에 질린 작은 동물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육장 구석에 숨어 있거나 뚫뚫 뚫쳐 사람 손길을 피하는 행동을 하지만 숨을 곳이 없다.

부실한 관리, 안전사고 위험까지

대부분의 동물체험장은 전문 사육사 없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운영하거나, 1~2명의 사육사가 모든 동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자연히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 결과 사료와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허다했다. 심지어 관람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동물을 잡고 끌어안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해도 영업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관람객들이 함부로 동물을 만지다 다치게 하거나, 반대

로 놀란 동물에게 공격당하는 등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아이들이 자주 올라타고 만지는 설가타거북은 부리가 단단하고 악력(顎力)이 세서 손가락이라도 물리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 토끼나 햄스터 같은 온순한 동물들도 위협을 느낄 경우엔 갑자기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관람객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거의 듣지 못한다.

동물학대산업 퇴출을 위해 동물원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이처럼 교육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동물체험장은 근절돼야 하는 전시 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무분별한 체험활동이 성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의 부재다.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 체험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의 설립, 관리에 관한 법이 없어 이를 제재는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쉽게도 2013년 9월,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서 동물원법이 통과돼 ‘교육’과 ‘체험’을 빙자한 동물학대산업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동물을 존엄한 생명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 여겨 쉽게 보고, 접하려는 사람들의 인식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다.



01



02

01 동물을 ‘체험’ 중인 아이와 이 모습을 촬영하는 엄마 02 은신처가 없는 공간에서 사람 손길을 피해 뚫뚫 뚫쳐 있다 ‘체험’ 당하는 동물들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생명운동가!

글 이현주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01 올 가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이벤트에 참석했다. 02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채식이란 더 이상 낯선 세계의 이방인들만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다. 채식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 성인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누구나 한 번쯤은 디톡스 프로그램으로서 시도해볼 만한 건강한 생활방식이 됐다. 물론, 대부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시도 정도에서 끝나지만 말이다. 마치 단식캠프에 들어가 일정기간 격리된 생활 속에서 식사를 끊는 일처럼, 채식 또한 어쩌다 한 번은 해 볼 수 있는 임시적인 식단일 경우가 많다. 반면 평생 채식주의

자로 살아가는 일은 결심을 굳게 했어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채식이 좋고, 동물을 사랑해서 공개적으로 채식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가족구두가 신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며, 생선은 맛있게 먹고 있다는 가수 이효리 씨가 느꼈던 모순을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껴보았을 것이다. 칼로 무 자르듯, 단번에 금이 그어지지 않는 게 어찌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꾸준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Meat Free Monday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

2009년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가 열리기 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자는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는 식단을 바꾸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바꾸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설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간기후변화협약체(IPCC)의 라렌드라 파차우리 의장은, 일주일 중 하루만 육식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25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폴 매카트니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2005년 영화 <불편한 진실(Unconvenient Truth)>을 제작했던 앨 고어 전 미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채식인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와 '고기를 줄이면 열을 내릴 수 있다(Less Meat, Less Heat)'는 슬로진은 큰 계기를 일으켜 이내 많은 국가에서 환경 캠페인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5주년이 되는 2014년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서 자발적으로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육식소비의 기후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공장식 축산 방식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지구의 모든 교통수단을 합쳤을 때의 배출량인 13.5%보다 많은 18%에 해당되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2009년 월드워치 보고서는 공장식 축산 방식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동물 배설물로 인해 토양과 해역을 오염시키며, 생물종 다양성을 깨뜨리고, 심각한 물 부족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51%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고기 소비의 79.3%는 선진국에서 이뤄지며,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 평균인 43.1%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경제력이 높을수록 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량 축산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급자족할 땅을 잃어버리고, 종자와 자생하는 천연

자원들을 파괴하며, 그로 인해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문제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빈곤빈부익부 양극화가 불러들인 결과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이다.

기후문제로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대량생산하는 잔인한 반생명적 문화만으로도 모자라, 야생 곰을 가두어 쓸개즙을 착취하기 위해 사료를 먹이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육 방식을 정부 승인 하에 농가에서 답습 중이다. 야생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곰들에게서 분비되는 성분은, 어떻게 철창에 가둬 사료를 먹이고 약물투여를 하는 곰들에게서 채집될 수 있을까. 넓고 푸른 숲에서 살아가는 곰들을 답답한 철창 안에 가둬놓고 오직 쓸개즙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한심한 인간의 위치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가! 매해 건강식품이나 약재로 이용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야생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육을 통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만 되면 등장하는 잔인한 패션 산업 역시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반생명적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야생 상태의 밍크, 여우, 너구리, 토끼 등 아무 죄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생명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도살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인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든 반생명적 죽임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자체의 구조적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자본시장과 대량생산되고 획일화된 상품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 변화는 정부나 대기업의 손이 아닌, 지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표어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운동가! 생명운동가!'다.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지구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보자.

엄마 별이 아가들에게 내려 준 평생 가족

글 김치·참치·콩닥·콩돌·돼지·우리 가족

2013년 4월, 경기 화성시의 공장단지 컨테이너 밑에서 떠돌이 개가 강아지 6마리를 낳은 후 급격하게 쇠약해져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제보가 동물자유연대로 들어왔습니다. 한창 어미 품에서 젖을 먹어야 할, 아직 눈도 못 뜬 어린 강아지들의 고달팠던 삶은 어미가 있어 버틸 수 있었을 테지요. 그런 강아지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은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남은 아가들을 모두 보듬기로 결정

하고,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들을 24시간 돌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급하게 모집했습니다. 다행히도 세 분이 나서 두 마리씩 나눠 맡아주셨고, 임시보호를 하던 김민주, 정수영 님은 이후 정식 입양까지 하셨으니, 이건 어쩌면 엄마가 아가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강아지들을 평생 가족으로 맞이해준 입양자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김치 & 참치' 입양자 김민주 님

작년 4월, 우연히 엄마 잃은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시간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키워왔기에 바로 임시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어미 잃은 아가들이 너무 가여웠지만 녀석들이 어찌나 귀여운지, 하루 종일 두 아가들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3시간마다 분유를 타주고 배변을 짜주다 보면 잠도 못 자고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아가들이 쏸쏸 자는 걸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시 보호 기간이 끝나고 아가들을 다시 동물자유연대에 데려다주고 돌아섰을 때의 그 마음은 난생 처음 겪는 생이별의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내줘야 아가들도 좋은 집에 입양할 수 있을 거다.' 간신히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입맛도 없고 재밌는 걸 봐도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전혀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녀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 마침내 저는 아가들을 입양했습니다.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함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마성의 강아지 김치와 참치, 게다가 김치, 참치와 똑 닮은 꼬물이 남매들 소식을 전해 듣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었어요! 제게 꼬물이 6남매는 운명처럼 하늘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김치



참치



'콩닥 & 콩돌' 입양자 김승영 님

콩닥이, 콩돌이 형제를 본 첫 느낌은 '정말 조그맣다'였습니다. 빨강고 통통한 아가 뺏살이 우리 누랑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그만 아이들이었습니다. 임시 보호를 요청하는 게시 글을 보고 '우리가 잠시 말아보면 어떨까?' 했던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 결국 정식으로 입양까지 하게 됐네요. 아침 출근길에 나선 아빠 다리에 오줌을 싸던 콩돌이는 이제 '이눔들~!' 하는 아빠의 호통소리에 잠이 깨어 화장실로 갑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세 아이들이 우르르 제일 먼저 반기는 풍경은 다른 가정집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사람의 아이들이 아닌, 동물 아이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요즘 시크하지만 순응할 줄 아는 콩닥이는 형 누랑이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서열 상승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귀여운 콩돌이는 누구에게나 엉덩이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백치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돼지' 입양자 정수영 님

임시 보호자를 찾는 작은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 호기심에 임시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고 매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가들을 돌보는 동안 호기심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변해갔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돼지와 저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돼지와 가족이 된 지 이제 1년이네요. 솔직한 마음을 적자면...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사랑이 더 커져서요. 매일 보면 질릴 법도 한데 돼지는 매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울 때 달려와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잘 때 품에 소옥 안깁니다. 외출했다 집에 늦게 오면 미안할 정도로 저를 반겨줍니다. 버려진 생명이 가여워, 사랑해주고자 입양했지만 저는 오히려 돼지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 주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우리' 입양자 김상희 님

저희 집엔 2002년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입양한 또미가 있습니다. 또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입양할 아기를 찾던 중 우리가 눈에 들어왔고, '소심함'이라는 소개 문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애교가 많은, 12살 또미 언니도 잘 챙기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사료를 주기 무섭게 다 먹어 치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양을 나눠 먹을 줄도 압니다. 우리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아빠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뭐하냐며 '사진 찍어 보내라', '전화 바꿔봐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동물자유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미랑 우리랑 재미나게 살겠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글 정전아 활동가 사진 최성규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고양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흑독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고양이를 돕고자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 가보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둔 길고양이용 밥그릇, 물그릇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분들은 단순히 그들의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엔 여전히 길고양이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웃과의 충돌도 줄어들고, 길고양이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밥 주는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깨끗한 밥자리 유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밥자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주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치워주세요. 먹다 남은 생선처럼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악취가 생겨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고, 길고양이 몸에도 좋지 않기에 길고양이에게는 고양이용 사료만 주는 게 좋습니다.



길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배설물을 흙에 묻는 습성이 있지만, 거리의 대부분이 아스팔트인 도시 환경에서 흙을 찾지 못한 길고양이가 어쩔 수 없이 길에 배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고양이 배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자에 모래를 담아두어 길고양이가 배변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준다면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배설물로 인해 길고양이 혐오 민원이 생기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마세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도 후다닥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리곤 합니다. 길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선의 차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짝하고 안쓰럽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밉살맞게 보이기도 하지만, 길고양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길고양이들은 길에서 태어나 세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를 익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친화적인 길고양이보다는 사람을 경계하고 가까이하지 않는 녀석들이 보다 안전한 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던 길고양이들이 학대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제보됩니다. '내가 밥을 주는 길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단순한 욕심이, 때로는 길고양이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집으로 데려가 평생을 책임질 게 아니라면, 길고양이 스스로 안전하게 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다면 TNR도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을 주는 행동이 길고양이를 모이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물이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평균 수명이 고작 3~4년에 불과하기에, 밥을 준다고 하더라도 길고양이 수가 무한정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밥을 주다 보면 어느 정도 길고양이가 모여드는 것은 사실이며, 밥을 먹으러 오던 길고양이가 출산을 반복한다면 나중에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Return)하는 TNR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TNR은 주민 민원 방지와 더불어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암컷은 보통 1년에 2, 3회의 발정을 겪고, 임신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발정이 반복됩니다. 발정 기간 동안 암컷은 상당한 고통을 겪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1년에 2, 3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동안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게다가 영양 부족, 추위, 질병 등의 이유로 길에서 태어나는 새끼고양이가 6개월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50%에도 미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수컷의 경우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발정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자기 영역에서 교미할 암컷을 찾지 못한 수컷은 암컷을 찾아 다른 영역으로 가는 도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동한 영역에서 원래 살던 수컷 고양이와 싸워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TNR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이 필요하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길고양이 담당 공무원에게 시행 여부와 일정을 문의한 뒤 신청해주세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TNR을 함께 한다면 돌봐야 할 길고양이 수가 많아져 곤란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개체 수 증가로 발정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도 방지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또한 발정과 임신, 출산이 반복되지 않으니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TNR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www.animals.or.kr)를 방문해주세요.

생명의 가치를 담은 트렌드를 창조하는 베이직하우스



인터뷰 · 정리 홍소영 활동가

지난 9월 5일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펴고 있는 베이직하우스의 김종원 브랜드 총괄부장을 만나 패션과 사람,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패션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동물 관련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지요?

베이직하우스의 철학은 ‘Good People’, 정확히는 ‘Good People Bring Out The Good In People’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저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계기를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찾았고, 그 존중은 연민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오가닉 먼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패션산업이 지구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물 오염과 농약 사용이니까요. 2013년 겨울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Fur-Free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퍼가 예쁘다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그 화려함 이면의 잔혹한 모피 생산과정과 동물의 고통 같은 진실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퍼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패션이란 타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은 하나의 상징이자 기호예요. 무작정 유행을 따르고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 자기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베이직하우스는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겨울 코트에 빠지지 않고 장식되는 부분 모피를 모두 인조로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Fur-Free 선언 후 업계에서 베이직하우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고객 반응이 궁금합니다.

패션업계에선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짧은 유행주기를 따라가는 걸 트렌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트렌디한 행동이란 앞서 얘기한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패션잡지 <VOGUE(보그)>가 2013년 겨울에 우리의 ‘Fur-Free’ 이야기를 실었는데, ‘보그도 트렌디함을 달리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감하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좋고 감동이라고 SNS를 통해 표현하시지만, 안 그런 분들은 아

예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다수의 고객에게 Fur-Free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얼 퍼’는 없냐고 찾는 분 때문에 매장 판매 직원들이 난처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퍼 없이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 여성 의류 몇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서 퍼의 장식적인 요소까지 다른 디자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운 또한 윤리적으로 채취한 것만 사용했구요.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좋은 사람’이 취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Fur-Free에 이어 입양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이신데요, 다음 캠페인도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마트 동물판매 매장을 처음 봤을 때는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듭 보다보니 ‘어? 저게 뭐하는 짓이지?’ 하게 되더군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은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다’를 가르치고, 생명의 존엄성과 측은지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함께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는 사실 고민인데 개인적으로는 ‘개식용 반대’로 하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말했더니 ‘노이즈 마케팅을 원하세요?’ 하더군요. 하하하. 그래서 일단 입양 캠페인을 더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캠페인 역시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입양해주세요

비글은 악마견이라는 편견, 이제는 버리세요!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핑크



루키아

사람들은 비글을 두고 ‘견공계의 악마견’이라고 말합니다. 퇴근해서 돌아와 보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데다, 가구도 물어뜯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비글은 다른 견종에 비해 에너지가 넘쳐서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도 없이 좁은 집 안에서 가둬 키우죠. 그러니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할 길이 없는 비글 강아지들이 저 지레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두 마리의 비글이 있습니다. ‘루키아’와 ‘핑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녀석도 비글답게 활동량이 많고 활발합니다. 하지만 말썽쟁이 ‘악마견’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비글치곤 너무 착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센터의 다른 아이들과 충분한 놀이를 통해, 또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운동을 좋아하신다고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일이라면 자신 있으시다고요? 그럼 감쪽하고 예쁜 비글과 함께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산책이 될 거랍니다.

파수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와 그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빛의 속도로 그러나 매우 선명하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자 분노가 더욱 거세게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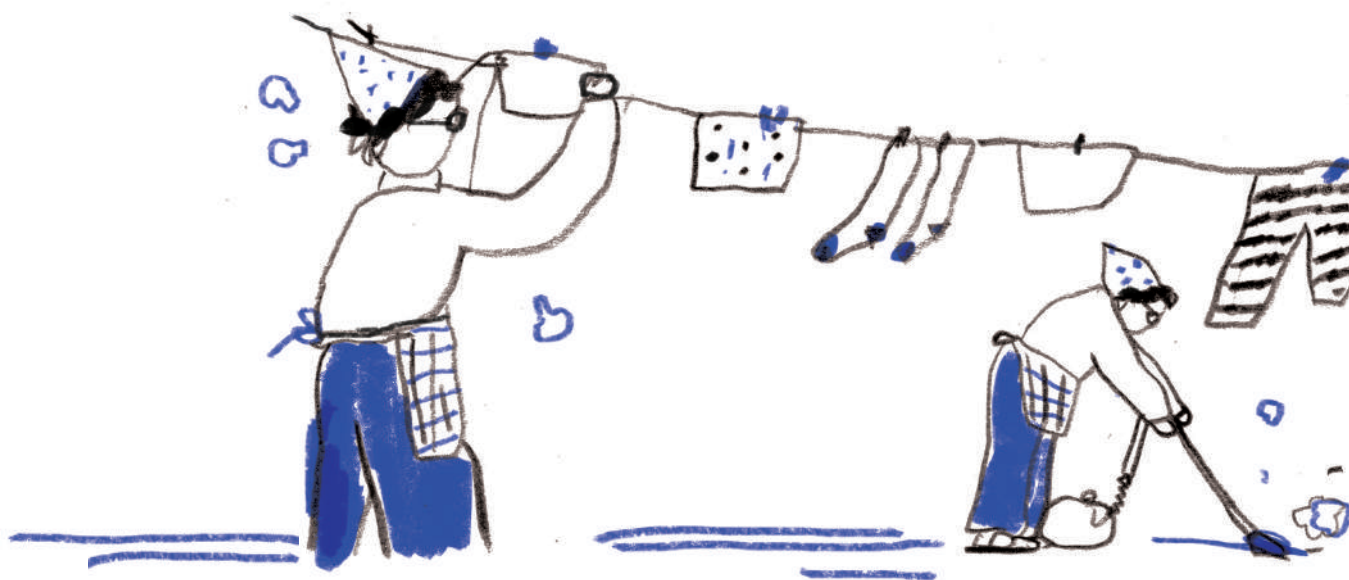
열과 성을 다해 돌봐준 후배들 중 몇이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다니더니 나만 쏙 빼고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았다. 그놈의 트위터 때문에 알게 된 그들만의 여행계획에 큰 상처를 입은 난 야수처럼 화를 냈다. 그리고 내 화를 지켜 본 후배 1인이 그 장면을 그들에게 전했을 거라 짐작된다. 그 중 몇이 급작스럽게 밴드를 열어 초대해 해온 걸 보면 말이다. 매일 찾아와서 신세타령하고, 걸핏하면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언니가 최고네’, ‘선배가 없으면 어찌 살지 모르겠네’ 하던 것들이 일머리와 인맥을 쌓아가면서 점점 찾아오는 횡수가 줄어 들고, ‘실은 그 언니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는 식의 뒷담화 내용을 제3자 입을 통해 전해 듣는다면가 하는 일들이 쌓여 왔다. 그리고 이번 일로 그간 쌓인 울화가 터져버린 거다.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속상한 맘을 털어 놓았더니 힐끔 쳐다 보며 하는 말. “인간은 원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존재야. 몰랐어?”, “모르긴 아냐. 나도 잘 알지. 그거 알아도 속 터지는

걸 어찌 하나!” 속사포처럼 대꾸하는 내게 친구가 소리쳤다. “아, 네발 달린 짐승을 키워도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지 말라잖아!” 사람 챙기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다보니 주기적으로 뒤통수도 맞고 발등도 찍히며 사는 모양이다.

친구와 나의 공통점은 이렇다. 1. 반세기 살았다. 2. 호불호가 분명하고 일단 맘에 든 사람은 끝까지 챙긴다. 3. 일을 대충하거나 신의 없이 행동할 경우 가차 없이 호통을 날린다. 4. 외강내유하다. 5. 뒤끝이 길다. 6. 생계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다. 7. 혼자 힘으로 세상에 발 딛는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꽤 많이 벌어졌던 터라 비슷하게 용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 8. 한 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대충 입바른 소리로 끝내지 못한다.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뼈아픈 소리 일지라도 가감 없이 발설한다.

이렇게 살아온 친구와 나는 우리를 둘러싼 ‘배은망덕한 것들’을 원망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왔는가에 대한 풍부한 예들을 경쟁적으로 꺼내놓았다. 신기하게도 원망의 말을 뱉어낼수록 원망이 커졌고, 우리가 했던 착한 일들은 발설하자마자 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멈출 수





가 없었다. 나는 맘을 풀 길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구시렁거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옷장 위 세 친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콩이, 하루, 밤비. 하루와 밤비는 캣맘인 위의 저 친구에게서 입양해왔고 콩이는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책로에서 울고 있던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 셋째로 자식 삼개 된 녀석이다. 아침마다 나는 아이들 먹이를 챙겨주고, 똥도 치우고, 청소기 돌려서 먼지와 털 뭉치들까지 치우는데 그리고 나면 땀이 맺힌다. 샤워하고 간단하게 아침상을 차린 후 세탁기를 돌린다. 그리고 느긋하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다. 아이들이 오기 전이었다면, 어제의 분노 폭발 후유증으로 폭식을 하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꿈쩍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후에 일어나 피자 혹은 차킨 또는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꼭꼭 씹어 묵은 감정들까지 다 삼켜버렸을 것이다. 하루가 제일 처음 내게 왔을 때, 눈도 채 뜨지 않은 어린 고양이에게 네 시간에 한 번씩 초유를 먹이고 똥을 뉘면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걸치게 된 나의 찌든 습성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 네 시간에 한 번 잠을 깨어 한 잔 재를 챙기는 삶은 뒤돌아보니 나를 돌보는 연습들이었다. 하

루가 외로울 거 같아서 들인 둘째 밤비는 극도로 겁이 많아 언제나 긴장 상태로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다.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내 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최근에 손길이 닿는 것 정도를 겨우 허락한 상태. 겨울날 눈밭에서 데려온 콩이는 제일 애교가 많은 아이인데 가끔 혼자서 불안한 신음소리를 내며 집안을 뛰어다닌다. 한겨울 담요 한 장 없이 케이지 채로 버려진 게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겁 많은 밤비와 불안한 콩이는 어떤 시간을 거쳐서 나에게 온 것일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세 파수꾼들 덕분에 난 아무리 늦은 귀가, 힘겨운 나날이어도 물에 적신 걸레로 잠자리를 닦으며 땀 흘리게 되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곤 하는 너희들의 표정 없는 다정함이 나를 살게 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로워도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며 깨끗이 샤워하고 자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파수꾼이다.

글 이숙경 (여성학자, 영화감독)

그림 최진영



활동소식

2014년 8월 ~ 2014년 9월



남양주 개 도살장 고발

해당 개 도살장은 분뇨 처리 시설 미비, 불법 건축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불법 개 도살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인도적 살처분에 대한 의견서 발송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 주입량, 수용 밀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재 이루어지는 살처분은 이러한 세부 지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살처분 방식 도입과 그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승마체험장 철수 요구

승마체험장 철수를 약속했던 한국 마사회는 여전히 도박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승마체험장 철수를 요청하는 민원 넣기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캣츠>와 함께하는 길고양이 캠페인

길고양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표현해 오랜 기간 사랑 받아온 뮤지컬 <캣츠>와 함께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유기묘 입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기묘 리조

유기된 뒤 길에서 살면서 등에 큰 상처를 입게 된 리조를 구조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몸에 큰 상처까지 안고 살아온 리조에게 평생 가족이 되어줄 분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을 신청해주세요.



KBS 드라마 <연애의 발견> 토끼 학대 사건 대응

물에 취약한 토끼를 목욕시키고 던지는 등 문제 장면에 대한 사과 방송, 촬영에 사용된 토끼의 생존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드라마 제작사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입으로 케이블 타이가 파고든 백구 구조

병원 검사 결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 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낸 백구는 제보자에게 입양됐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하루 빨리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백구 학대 사건 진정서 제출

검찰은 피의자를 고작 벌금 30만원 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353명이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바다거북 방류 요구

치료를 핑계로 2년 넘게 바다거북을 억류하고 전시해온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바다거북 방류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9월 27일 푸른바다거북을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 서울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참여

동물자유연대 부스를 설치하고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 문제,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TNR 홍보, 고기 없는 월요일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은 길고양이를 도울 방법을 묻기도 했고, 육식을 줄이고 동물복지 축산물에 더욱 관심을 갖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꼬물꼬물 아기 강아지들이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글 손혜은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태어난 지 약 50일 정도 된 ‘꼬물이’ 아기 강아지들이 반려동물복지센터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로빈, 로이,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들을 만난 센터의 활동가들은 모두 금세 사랑에 빠졌답니다. 매일 금이야 옥이야 귀여운 아기 강아지들을 아끼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세 ‘꼬물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겠어요?



로빈



로이



루시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학대 사건 대응,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재입양, 개 식용 금지, 길고양이와의 공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장동물이 생태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식 확산 캠페인,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으로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실험동물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생체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에게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기업에게는 대체 소재 개발 및 사용을 촉구해 나가는 대중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반대합니다.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쇼, 체험전시 등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기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호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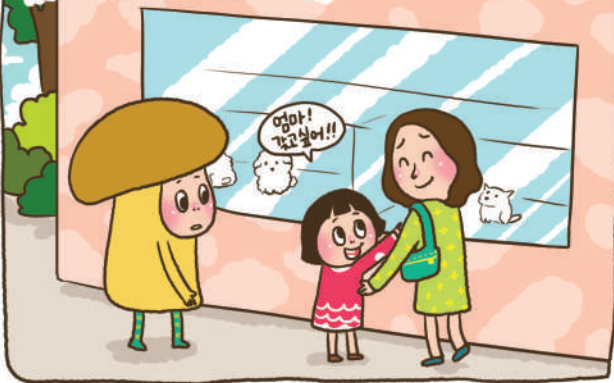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계좌 국민은행 546901-01-146642
예금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누동바의 그루밍

길을 건다 마주치는 유리 안의 강아지들.



클릭 몇번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터넷 분양사이트들.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이 세상이 영화 매트릭스 같은 생각이 든다.



펫샵에서 인스턴트식으로 소비되듯 팔려나가는 작고 어린 강아지들. 그 이면에는 보미만능의 고동스러운 환경에서 번식만을 위해 평생 학대당하다가 죽어가는 번식장의 종전들이 있다.



종전상의 개들은 평생 돈상에 갇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새끼 낳는 기계로 전락하여 학대당하다가 결국 운명이 망친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는 흔히 반려동물들을 데려온다고 할 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묻곤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일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과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명 조종마저 결여된 곳에서 태어난 펫샵의 강아지들을 마냥 귀엽고 예쁜다는 이유로 쉽게 데려갈 수 있을까?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자!